

제109회 3月 13日

- ... 본회가 주최한 제 ...○
- ... 109회 발명교실이 ...○
- ... 지난 3월 13일 발명 ...○
- ... 장려관 연구실에서 ...○
- ... 개최되었다. 매월 들 ...○
- ... 째 토요일 오후 1시 ...○
- ... 30분에 개최되는 발 ...○
- ... 명교실은 이 달에도 ...○
- ... 1백여명이 참석하여 ...○
- ... 성황을 이루었다. ...○
- ... 이날 발명교실에 ...○
- ... 서는 황종환 변리사 ...○



옷걸이 겸용 선반 발명가 한국실업 최성원 사장

하숙·자취 등을 했던 학창시절에 보다 넓은 생활속의 공간을 찾고자했던 생각을 간직하고 있다가 발명을 하게된 그는 아무리 사소한 발명이라도 발명은 나라경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선반이란 벽에 가지런한 막대기 두세개를 걸어놓고 그 위에 물건이나 간단한 가재도구를 올려놓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의 거의 없을 것이다. 보기에는 간단해 보여 더이상의 아이디어는 떠오르지 않을것

처럼 보이지만 발명은 이곳에도 존재했다.

“옷걸이 겸용 선반”이 바로 그것이다.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 최사장은 자취를 하면서 이사를 다닐때마다 그다지 크지 않은 방때문에 벽에 선반을 설치하려고 떼었다 붙였다 하는 작업이 약간은 귀찮고 힘들었기 때문에 좀더 편리한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하게 되었다. 이 구조물은 먼 옛날 우리 선조들이 생활에 이용해 온 것이라 많은 필요성을 느끼면서 사용했다기 보다는 당연히 사용해 왔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최사장

의 변뜩이는 재치는 자신이 게으름만 피우며 있도록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서 결국 성인이 되어 그 변뜩이는 재치의 결실을 맺게된 것이다.

선반을 찬찬히 뜯어보면 우선 첫째로 좁은 공간에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다. 둘째는 물건을 올려놓는 공간으로만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선반을 이용할때 그 밑은 항상 빈 공간으로 버려 두어야만 하는 단점이 있다. 때론 장롱같은 것을 들여놓을땐 벽에 튀어 나와있는 선반때문에 여간 불편한게 아니었다.

발명교실

성공사례 등 발표

- ... 의 「산업재산권제 ...○
- ... 도에 대한 강의에 ...○
- ... 이어 한국실업 대표 ...○
- ... 인 최성원 사장의 ...○
- ... 성공사례 발표와 본 ...○
- ... 회 김관형 상근이사 ...○
- ... 의 「발명의 발상기 ...○
- ... 법과 사업」에 대한 ...○
- ... 강의와 토론이 있었 ...○
- ... 다. 발명가의 성공사 ...○
- ... 례를 간추려 소개한 ...○
- ... 다. <이두성記> ...○



최사장은 이 불편한 점들을 없애고자 처음 생각한 것이 접는다는 것이었다. 이래서 고안한 것이 바로 접착식 지주대였다. 지주대만 있으면 빨래줄도 댈 수가 있고 사용 후에는 지지대를 접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해 시중판매까지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최사장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옛날부터 깊이 생각해온 접착식 선반을 고안하기에 이르렀다. 지주대(프라스틱)에 구멍을 뚫고 파이프를 촘촘히 끼워 선반대로 이용하고 선반이 된 파이프 양쪽에 연결대를 끼우고 다시 두꺼운 파이프 한개를 연결대 끝에 끼워 마개로 막아 선반 밑의 공간은 옷걸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보기에 약할 것 같지만 여기에 얇은 옷은 30벌 정도 두꺼운 옷은 20벌 정도를 걸어 놓을 수 있다니 참으로 편리하다.

간단한 삼각 지지대의 원

리를 이용한 단순한 발명이지만 그는 서둘러 실용신안과 의장을 출원하여 등록권리를 취득하는 세세함도 잊지 않았다.

그는 이 발명품을 사업화 하는 데는 다른 영세 발명가들 처럼 많은 어려움과 싸워야 했다. 우선은 홍보였다. 그는 자신이 직접 홍보를 위해 영업을 뛰기로 마음 먹었다. 그러던 중 대한주택공사에서 연락이 왔다. 분당등 신도시 아파트 건설단지의 모델 하우스에 샘플을 설치해 달라는 것이었다. 시민들의 반응은 참 좋았다. 그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전국우수발명품전시회, 유통전시회 등에 출품하여 많은 호응을 받았다.

그런데 전시회이후에 자기가 개발한 제품과 거의 흡사한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수소문 끝에 모가구사에서 만든 샘플을 구해다 유심히 살펴 보았다.

역시 자기가 발명한 제품과 거의 유사했다. 그러나 한 가지 모방할 수 없었던 것이 있었다. 그것은 최사장 자신이 이미 특허 등록을 받아놓은 삼각 받침대였다. 그것은 모방할 수가 없었다. 특허권 침해라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특허권 분쟁 싸움은 벌이지 않기로 하고 제품의 우수성과 노력으로 승부를 가리기로 마음먹었다. 이 발명품의 생명은 바로 삼각지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제품의 경쟁은 이미 승부가 나버렸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어렵게 시간을 쪼개어 토·일요일날은 거의 금형공장에 살다시피 한 노력의 결실이 이제 맺히기 시작 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소비자와의 신뢰도 싸움에서 승리만이 남아 있다는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